

研究論文

6·25전쟁과 북한‘청년영웅’

김종수*

I. 서론	V. 결론
II. 전시동원 체제에서의 청년의 역할	<참고문헌>
III. ‘청년영웅’의 탄생 배경과 활동	<국문요약>
IV. 북한 위기와 ‘청년영웅’의 부활	

I. 서론

6·25전쟁¹⁾은 남북 모두에게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준 과거의 사건이자, 그 상처가 아직도 일상 곳곳에 남아 있는 현재의 사건이기도 하다. 민족분단 고착화와 적대감은 세계적 냉전이 와해된 지 20년이 다가오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

* 한반도전략연구원 연구원, 정치학 전공(jslobo@naver.com).

1) 본 논문에서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6·25’ 전쟁으로 부르기로 한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전쟁’으로 부른다. 한국전쟁은 the Korean War를 번역하면서 쓰이게 되었지만, 한국은 대한민국의 약칭이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를 무대로 남북이 모두 당사자인 이 전쟁의 성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전쟁의 무대, 전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반도 전쟁’이 오히려 ‘한국전쟁’보다 더 적합한 표현일 것이다.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선인, 2005), 53쪽. 북한은 6·25전쟁을 “미제와 그의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전쟁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조국해방전쟁, 민족해방전쟁이었으며 인민의 원수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계급투쟁이었다.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은 또한 미제를 비롯한 세계반동의 연합세력을 반대하고 사회주의나라들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튼튼히 지키기 위한 치열한 반제반미투쟁”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선로동당력사』(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267쪽.

다. 전쟁이 설정한 냉전과 분단의 의식구조는 세계와 사회의 절반만을 진리로 인식하는 기형적인 인식질서를 창출하였다.²⁾

전쟁은 영웅탄생의 최적 조건이다. 영웅이라 함은 보통 인간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초인적인 힘과 위대한 사상, 아름다운 인간애를 갖춘 존재로 사회와 역사에 명백한 기여를 한 특출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³⁾ 북한에서는 6·25전쟁 기간 550명 이상 영웅이 탄생하였다. 이러한 ‘영웅적 인물’은 권력에 의해서 과잉 신비화되고 신화화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창조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영웅은 일반적으로 그 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선전 수단으로 이용된다.⁴⁾

북한은 또한 전쟁의 경험을 체제 유지의 역사적 자원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 북한은 전쟁발발일과 휴전협정 체결일을 기념하여 대중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즉 ‘전쟁승리’에 대한 기억을 통해 체제 정당성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쟁영웅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전환과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체 인민들이 따라 배워야 할 모범이 된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영웅의 창조와 그 영웅의 소비는 사회주의 ‘스펙터클 사회’를 구축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이 영웅들은 권력과 대중 사이를 스펙터클 형태로 매개하면서 권력의 힘줄, 지도자의 욕망을 사회에 정착시키고 동원을 가능케 한다.⁵⁾

북한은 1995년 1월 1일 김정일의 ‘다박술 초소’로 불리는 214부대를 시찰을 계기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나가는 정치”⁶⁾인 ‘선군정치’를

- 2) 박명립은 6·25 전쟁의 영향을 분단의 고착과 적대, 냉전의 전방 초소, 보편의 상실이라는 정신구조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명립, 『한국 1950 전쟁과 평화』(나남출판, 2004), 31~41쪽 참고.
- 3) 북한에서는 영웅을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한 투쟁에서 세운 위훈으로 하여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로 정의한다. 김정일, 『모두가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9쪽.
- 4) 차문석, 「북한의 노동 영웅에 대한 연구: 영웅 탄생의 정치 경제적 매커니즘」, 『사회과학연구』, 21집 1호(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2004), 177쪽. 김일성은 청년들에게 생활이 향상되면 될수록 북한 사회주의의 제도와 생활이 혁명 선배들의 간고한 투쟁과 막대한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을 명심할 것을 강조하였다. 김일성,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65』(조선중앙통신사, 1965), 27쪽.
- 5) 권형진·이중훈(역음), 『대중독재의 영웅만들기』(휴머니스트, 2005), 87쪽.
- 6)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평양출판사, 2000), 27쪽.

공식화하였다. ‘선군정치’의 등장은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북한이 부닥치게 된 ‘도전’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⁷⁾ 북한의 ‘선군정치’ 시대에 청년은 군대 구성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여 청년이 중시될 수밖에 없으며, 6·25전쟁의 ‘청년영웅’ 정신은 선군정치 시대에 청년들에게 ‘계승’되어야 할 정신의 전형(典型)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대 상황은 북한 ‘청년영웅’을 단순한 선전선동의 도구적 기능을 넘어 체제유지의 전술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6·25전쟁 기간 북한 ‘청년영웅’의 역할과 성격을 분석하여, 오늘날의 위기 상황에서 ‘청년영웅’이 어떻게 기억되며, 그 정신이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청년영웅전』, 『로동신문』,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사』 등에 대한 문헌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범위는 6·25전쟁 시기를 중심으로 하되, 전쟁 후 ‘청년영웅’이 어떻게 체제유지 기제로 작용하는지 현재와 비교하였다.

II. 전시동원 체제에서의 청년의 역할

1. 전선단원 운동과 선전·유격대활동 강화

1950년 6·25전쟁 발발과 함께 북한은 전시체제에 돌입하였다. 1950년 6월 26일 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일체의 주권을 군사위원회에 집중시켜 전체 인민과 주권기관, 정당, 사회단체 및 군사기관은 그 결정과 지시에 절대복종해야 한다고 결정했다.⁸⁾ 다음날인 1950년 6월 27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전시상태에 관하여’를 선포되었다. 정령에는 전시상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국가 기관의 모든 기능은 해당 지역의 도 또는 시 지방군 정부에 속하며, 이 지역의 국가기관과 사회단체의 모든 역량을 전쟁 수행에 총동원한다고 규정하였다.⁹⁾ 1950년 7

7) 위의 책, 13쪽.

8) 서동만, 앞의 책, 379쪽. 군사위원회는 위원장 김일성, 위원 박헌영, 홍명희, 김책, 최용건, 박일우, 정준택으로 구성되었다. 정령 원문은 《해방일보》, 1950년 7월 2일 참고.

9) 최중극, 『위대한 조국해방전쟁과 전시경제(1950~1953)』(사회과학출판사, 1992), 26쪽. 한편 남한에서도 1950년 7월 8일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7월 22일에는 ‘비상

월 1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전 지역에 동원을 선포함에 대하여’를 통해 동원을 구체화시켰다.

전시동원은 일반적으로 병력동원과 노무동원으로 나눌 수 있다. 청년들은 병력과 노동동원의 실제 대상으로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계층이다. 김일성의 방송연설을 시작으로 각 기관에서는 군중대회와 종업원회의, 민청열성자회의, 민청초급단체총회 등 각종 대중 집회와 모임을 통해 전선에 나가 싸울 것을 추동하였다.¹⁰⁾ 그러나 개전 초기에는 청년들을 전장 동원에 집중하진 않았는데, 1950년 6월 28일 ‘평양시 청년열성자회의’에서 전쟁에 참가하는 것과 군수품 수송, 복구 공사, 부상병 원호와 같은 전쟁지원과 함께 학업에 정진할 것을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다.¹¹⁾

전쟁의 지속으로 인해 희생자가 늘어나자, 청년들에 대한 병력동원이 ‘전선에 나가길 바라고 원하는’ 형식인 ‘전선탄원운동’으로 본격화되었다. 전쟁과정에서 공화국 영웅칭호를 받은 리수복은 전선에 나갈 것을 탄원하면서 탄원서에 “나는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장군님의 명령대로 미제강도놈들의 침해로부터 행복한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손에 총을 잡고 전선으로 나갈 것을 피 끊는 조선청년의 심장으로 탄원한다”라고 하였다. 한 철도노동자는 전선탄원을 하면서 “나는 조국의 자유와 공화국정부가 헌법으로써 보장해준 노력의 영예와 자유를 고수하기 위하여 우리 강토에 침입한 미제의 마지막 한 놈까지 때려 부시고야 말 것이다”라는 맹세로 대중을 선전선동하고 집단적 결의를 높이게 하였다.¹²⁾ 그 결과 1950년 7월 초 북한 지역 청년들 중에서 전쟁에 자원하는 수가 32만 명¹³⁾에서 57만 명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에는 10만 명의 여성들도 포함된다.¹⁴⁾ 전쟁 개시 약 2달이 경과한 8월 15일경 80여만 명의 북한 청년들이 인민군대에 입대하였다.¹⁵⁾

향토방위령’을 공포하여 14세 이상의 남자는 향토방위의 의무를 지게 하였으며, 7월 26일에는 대통령령 긴급명령 제6호로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하여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국방군사연구소, 『점령정책·노무운동·동원』(국방군사연구소, 1995), 240쪽.

10) 허중호,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1권(사회과학출판사, 1983), 242쪽.

11) 「원썩을 소탕키위하여 청년들은 총궐기하자」, 《로동신문》, 1950년 6월 29일.

12) 박영자, 「6·25전쟁기 북한의 후방정책」, 『군사』, 제57호(군사편찬연구소, 2005), 242쪽에서 재인용.

13) 「32만여의 북반부청년들 전선출동을 열렬히 탄원」, 《로동신문》, 1950년 7월 5일.

14) 「전선출동탄원한 젊은이들 57만명을 돌파」, 《로동신문》, 1950년 7월 8일.

1951년 남북 민청 통합과 함께 제시된 후방 민청 조직의 활동으로 빨치산 활동 지원, 공장·기업소·도시·농촌 복구, 전시수송 강화, 위생방역 사업, 선전선동사업, 농촌지역에서의 민청 간부 양성, 대외 선전사업 등이 있었다.¹⁶⁾ 이러한 임무들 중에 강조된 것 중에 하나가 ‘선전공작’이었다. 인민군의 진격과 빨치산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수한 맹원들을 교양하여 ‘적군외해공작’과 ‘농촌선전공작’을 펼치도록 하였다. 또한 전쟁 승리를 위해서는 ‘최후 승리에 대한 의욕’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민청에서 여성청년, 교원, 학생소년들을 동원해서 해설과 선전 사업을 펼치도록 하였다.¹⁷⁾

전시(戰時) 북한에서 선전사업이 정연한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민주선전실이 농촌 ‘리’마다 설치되면서부터다.¹⁸⁾ 학생들은 ‘학습반’을 거점으로 정치사상교양을 진행하였으며, 전선원호·노력동원과 같은 조직생활을 하였다. ‘학습반’은 거주 지역별 통학구역을 단위로 하여 거리와 교통 편리 등을 고려하여 조직되었으며 7~10명 정도로 분단과 유사한 규모였다. 학생들은 선전대, 학생작업대, 생활대, 자위대와 같은 다양한 사회정치 활동에 동원되었다.¹⁹⁾

1950년 9월 이후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김일성은 “현 계단에 있어서 우리 당의 전략적방침은 적들의 진공속도를 최대한으로 지연시키면서 시간을 쟁취하여 인민군주력부대들을 구출하고 새로운 후비부대들을 편성하여 강력한 반공격집단을 형성하며 계획적인 후퇴를 조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당원들과 주민들에게 유격투쟁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였다.²⁰⁾ 김일성의 지시가 있자 당 조직들은 소년들을 중심으로 ‘소년근위대’를 조직하여 후방교란 사업을 펼쳤다. 1950년

15) 김일성, 「모든 것을 전선으로」(8·15해방 5돐 평양시 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1950년 8월 15일), 『김일성 저작집』6권(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69쪽.

16) 김일성, 「현 정세와 민청단체들의 당면과업에 대하여」(남북조선 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연합회의에서 한 연설, 1951년 1월 18일), 『김일성 저작집』6권(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257~262쪽.

17) 위의 책(1951), 260~262쪽.

18) 1951년 8월 30일 내각결정 제321호로 ‘농촌 리 민주선전실에 관한 규정 승인에 관하여’로 발표되었으며, 그 전문은 《로동신문》, 1951년 9월 7일 참고. 민주선전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동만, 앞의 책, 471쪽; 김상범, 「한국전쟁기 조선로동당 정치조직사업의 특징에 관한 연구: ‘총력전사회’의 형성」,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2004), 117쪽을 참조.

19) 김창호, 『조선교육사』3(사회과학출판사, 1990), 287, 295쪽.

20) 김일성, 「일시적인 전략적 후퇴와 당단체들의 과업」(도당위원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50년 9월 27일), 『김일성 저작집』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128쪽.

10월 4일 강원도 양양지역 소년들이 ‘양양소년근위대’ 결성을 시작으로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서 원통중학교 소년단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학생들이 ‘피플새소년근위대’를 결성하는 등 북한 전역에서 다양한 ‘소년근위대’들이 결성되었다.²¹⁾ 북한의 ‘소년근위대’ 활동은 전쟁 상황이 다급하게 전개되자 ‘총력’을 모으기 위해 학생들을 전쟁에 동원한 비극적인 사례다.

이러한 소년근위대 활동에 대해 김일성은 “우리 노동당이 민주청년동맹을 조직한 첫날부터 청년들에게 옳은 교양을 주었고 그들을 애국주의사상과 자기희생적 정신으로 무장시킨 결과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영용성을 발휘한 청년들의 빛나는 업적을 찬양하며 당을 도와 청년들을 옳게 교양하고 전쟁승리로 동원한 민주청년동맹의 사업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치하하고 있다.²²⁾

김일성 출생 40주년이 되는 시점인 1952년에 청년들이 ‘김일성장군 락전’ 연구와 학습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이어 1953년에는 김일성이 직접 학생들에게 ‘김일성장군의 락전연구소조’를 만들었으며,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배워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기 위한 역사적 사변”이라고 서술하고 있다.²³⁾ 다른 자료에서는 이보다 더 나가 ‘김일성장군 락전소조’를 “만경대혁명학원을 다니시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구상**에 따라 학원 안에 결성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²⁴⁾ ‘김일성 장군의 락전 연구소조’ 활동에 대한 《평남일보》 1953년 4월 23일 기사를 인용하고 있어 《평남일보》 기사 존재 유무를 가릴 수 없는 조건에서 연구소조 존재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는 반박이 어려다 하더라도 갖 10살을 넘긴 김정일에 의해 결성되었다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것을 ‘주체의 혁명 계승’을 완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결과론적 해석’으로 평가할 수 있다.

21) 금성청년출판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소년들의 투쟁』(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82), 8쪽.

22) 『김일성 저작집』 6권, 250쪽.

23) 금성청년출판사,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령도사』(금성청년출판사, 1997), 257~258쪽.

24) 김창호, 앞의 책, 293쪽. 북한의 혁명사적지 중에 김정일의 전쟁 시기 활동을 기념한 곳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장자산 소년단야영소로, 김정일이 8세이던 6·25 당시 평양에서 이곳으로 피난해서 전선원호사업을 전개하였다고 주장하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박성희, 『북한 청소년 단체활동에 관한 연구』(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36쪽. 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임.

2. 전시생산과‘전선원호’활동 강화

전쟁 시기 북한경제는 청년들이 모두 전선으로 나가 노동력과 기술력의 부족을 겪던 힘든 상황이었다. 급속히 늘어나는 전시 물자를 충족하기 위해 후방 주민들의 무한한 ‘애국적 헌신성’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북한은 전시경제의 특징을 ① 경제활동에서 군사제일주의 보장, ② 강력한 중앙집권제, ③ 자력갱생, 애국주의 등 혁명정신 고양, ④ 전선과 후방의 긴밀한 통합체제, ⑤ 사회주의적 경제 지반의 공고화로 규정하였다.²⁵⁾

적에 대한 증오심과 조선노동당 입당은 증산경쟁운동의 좋은 자극제였다. 민청원들의 전쟁 동원으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하자 법으로 금지된 청소년들의 노동이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다. 평양시당의 일부 초급단체에서는 ‘근로 열성자’들의 입당 청원이 많았다. 그러나 만 20세 이하, 보증인의 교체 시일 부족, 직장 근무연한 부족한 사람을 당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 규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부결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였다.²⁶⁾ 당시 민청원들의 가입 연령이 14~28세였으며, 20세 이하 청(소)년들의 입당 좌절은 전시생산의 주역인 청년들의 노동의욕을 저하시키는 일임은 분명하였다.²⁷⁾ 결국 1년 뒤인 1951년 10월 당중앙정치위원회에서는 만 18세부터 입당을 허용하였다.²⁸⁾

북한에서는 전시경제 운영을 위해 소련 전시경제 경험을 받아들여, 전시 증산경쟁 운동에 주목하여 ‘청년전선 작업반’운동을 강조하였다.²⁹⁾ 이와 함께 ‘전선 브리

25) 최중극, 앞의 책, 83~86쪽.

26) 「평양시 당단체의 당장성사업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조직위원회 제46차 회의 결정서, 1950년 9월 10일), 『북한관계 사료집』29권(국사편찬위원회, 1998), 518-520쪽.

27) 청년동맹의 가입 연령은 1948년까지는 만 16-26세, 1956년까지는 14-28세, 1964년부터 현재까지 14-30세이다. 최대석·김종수, 「북한 권력승계 시기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변화 연구」, 『현대북한연구』, 9권 1호(북한대학원대학교, 2006), 84쪽.

28) 「당 장성에 대하여」(당중앙정치위원회 제100차 회의 결정서, 1951년 10월 9일), 『북한관계 사료집』29권, 149쪽. 1948년 3월 2차 당대회에서 확정된 조선로동당 규약 제2장 5조에서는 “20세에 달한 남녀는 당원이 될 수 있으며 당에 입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원 2명의 보증서를 첨부한 개별적 입당원서를 당세포 제출할 것”으로 규정했다. 전쟁 후 개편된 3차 당대회에서는 만 18세부터 입당할 수 있으며, 민청원일 경우 시·군 민청에서 입당 보증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전쟁 시기 결정된 사항을 확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토통일원,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제1편(국토통일원, 1988), 271쪽, 527쪽.

가다 운동, '전선 돌격대 운동,' '2인분 3인분 초과 생산 운동,' '원가저하 운동'과 같은 다양한 명칭과 방법으로 증산 경쟁운동을 전개하였다. 1941년 소련에서는 공청원인 보킨의 제안으로 '2백명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 운동은 북한에서 전개한 '2인분 초과 운동'과 같은 내용이다. 운동에 참가한 공청원은 먼저 자기의 기준량을 완수한 후 전선에 나간 친구의 몫까지 생산하는 운동이었다. 이 '2백명 운동'이 발전하여 '전선청년작업반'운동이 되었다. '청년작업반'운동은 전쟁이라는 조건에서 생산성과 달성을 위한 가장 우수한 형태로 평가받으면서, 청년반원들이 "눈도 부쳐보지 못하고 몇 주야 동안 일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전쟁 말기에는 15만 5천개의 청년작업반에 백만 명의 청년들이 참가하였다.³⁰⁾

전쟁 시기 신의주 낙원기계공장에서 '신포항'이라는 여성 영웅이 탄생하였다. 그는 전쟁과 이후 복구과정에서 낙원기계공장이 '자력갱생·결사관철'의 본보기로 부상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락원의 10명 당원'이라는 신화를 창조하는 주역이 되기도 했다. 그가 소속된 주철직장(생산라인)을 신포항주철직장으로 개명하였다.³¹⁾ 여성 노동자인 고영숙은 '원가저하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는데, 그 결과 금속 부문에서만 연 3억 3천만원 이상의 이익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시간외 노동,' '공휴일 노동'에 약 8,600여개의 작업반이 참가하여 총 80만 시간 노동을 제공하였다.³²⁾

농촌지역 청년들도 '전선청년돌격대'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돌격대원들은 파괴된 농경지 복구와 논밭 김매기, 비료생산 등 모든 영농작업을 집단적으로 전개하였다. 농촌 민청 초급단체에서는 맹원 전체가 '전선지원돌격대'에 가입되어 이앙·제초와 같은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공습으로 인해 주간 작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수기가 다가오면 작물을 제때에 수확하기 위해 별도로 '청년추수반'을 구성하였다. '청년추수반'은 야간에 수확과 운반, 탈곡 작업을 진행하여 '적기수확'하였다.³³⁾ 이는 일반 주민들을 소개(疏開)한 뒤 청장년들이 중심이 되어 '전선공동

29) 「군수품 생산보장을 위한 당단체들의 과업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조직위원회 제46차 회의 결정서, 1950년 9월 10일), 『북한관계 사료집』29권, 516쪽.

30) 청년생활사, 『레닌-스탈린적 공청』(청년생활사, 1950), 247~249쪽.

31) 차문석, 앞의 논문, 187쪽

32) 김영동,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6), 31~32쪽.

33) 「적기에 벼가을을 하자: 평양시 주변 남교리 청년들」, 《민주청년》, 1952년 9월 23일.

작업대’를 구성하여 공동 경작하는 노력을 펼친 결과였다.³⁴⁾ 또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조선원조주간,’ ‘조선아동원조주간,’ ‘조선원호증산운동주간’과 같은 운동을 통해 모집해 준 쌀, 고기 등 소비재는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펼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³⁵⁾

남자들이 전장에 동원됨에 따라 여성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이 전시경제의 중요한 과제였다. 전쟁 기간 여성 동원의 대표적 운동이 ‘여성보잡이운동’이었다. 평안남도 개천군 여성 민청원이었던 락희는 처녀 보잡이운동의 전파자였다.³⁶⁾ 소를 부리며 논밭은 가는 보잡이는 전통적으로 남자만 할 수 있는 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보잡이를 할 남자들이 전선으로 나간 상황에서 당 조직과 여성동맹은 ‘여성보잡이운동’을 조직하였다. 이 운동은 “여성들이여! 보탑을 잡아라! 전시식량증산을 위하여 전선에 나간 남편과 아들과 오빠들을 대신하려거든 그들이 총을 잡은 마음으로 보탑을 잡아라!”라는 구호로 급속히 북한 전역으로 보급되었다.³⁷⁾

북한 소년들은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정신적·물질적 지원 운동을 전개하였다. 전장에서 싸우는 군인들에게 사기는 중요한 문제이다. 군사적 활동에서 본질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위험성이다. 인간의 여러 가지 정신적 힘 가운데 위험성에 대해 가장 고귀한 정신은 용기³⁸⁾인데 인민들의 지지와 성원은 전장의 군인들에게 용기를 실어주는 중요한 원천이었다. 이에 북한에서는 소년들의 ‘전선원호’ 운동을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 인민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조선소년들의 창조적 운동으로 전쟁 승리에 크게 기여한 운동”³⁹⁾으로 평가하고 있다.

소년들의 전선원호운동은 위문활동, 군기(軍器) 헌납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소년들의 위문활동으로는 위문편지 쓰기와 위문품 보내기, 위문공연 등이었다. 소년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해방후 우리나라의 인민경제발전』(과학원출판사, 1960), 88쪽.

35) 박태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1(사회과학출판사, 1985), 115~116쪽.

36) 락희는 준혁리에 46명의 여성 보잡이를 양성하여 전체 논 면적의 80%를 갈았다. 그리고 개천군으로 운동을 확산하여 260명의 여성 보잡이를 양성하였다. 민청출판사, 『조선청년』(2)(민청출판사, 1961), 292쪽.

37) 력사연구소 민속학연구소, 『조국해방전쟁시기 발현된 후방인민들의 혁명적 생활기풍』(사회과학출판사, 1976), 69~70쪽.

38) 클라우제비츠(저)/이중학(역), 『전쟁론』(일조각, 1981), 20쪽.

39) 금성청년출판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소년들의 투쟁』(금성청년출판사, 1982), 83쪽.

단이 중심이 되어 자신들의 학습과 소년단 생활, 후방가족 돕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좋은일하기운동’ 성과, 미국에 대한 복수에 대한 당부 등의 내용을 담은 위문 편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였다.⁴⁰⁾ 군기헌납운동은 물질적 지원운동이다. 군기헌납운동은 사실 6·25전쟁 시기 북한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었으며, 소년들만의 활동 또한 아니었다.⁴¹⁾ 일제 식민 통치기 ‘친일파’들의 협력 상징이 ‘비행기 헌납’이었다. 대표적인 ‘친일파’ 문명기(文明琦, 창씨명 文明琦一郎)는 1935년 육군과 해군에 각각 1대씩의 비행기를 헌납하는 비용으로 10만원을 기부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 인사가 되었다.⁴²⁾ 해방 이후 남한에서도 ‘애국’의 상징으로 비행기 헌납이 이루어졌다. 중유를 수송하려는 북한 수송선을 검거한 인천 헌병들은 국가에서 받은 상금을 ‘비행기’ 기금으로 헌납하였다.⁴³⁾ 현대화된 전쟁 수행을 위한 필수품인 ‘비행기’ 헌납은 애국의 상징으로 작용하였다.

6·25전쟁 기간 북한 소년들의 ‘애국’에 대한 실천이 ‘소년호’ 헌납운동으로 나타났다. ‘소년호’ 헌납운동은 1950년 7월 13일 북청군 소년들과 평양 제14인민학교 소년단원들이 ‘소년호’ 헌납운동을 결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소년들의 군기헌납운동은 궁극적으로 인민군대의 물질적 지원과 함께 소년들의 ‘정치화’ 과정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년호’ 헌납운동 과정 자체가 “혁명의 계승자들인 소년들이 일하기를 좋아하고, 개인보다 조직, 사회와 인민을 귀중히 여기는 집단주

40) 위의 책, 86쪽.

41) 청년들을 비롯해 많은 주민들이 군기헌납운동에 참가하였다. 전쟁 초기인 1950년 8월 《로동신문》에 소개된 기사만 살펴봐도 다음과 같다. 「비행기 땅크 함전기금헌납운동 북반부 각지에서 활발히 진행」, 《로동신문》, 1950년 8월 1일;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여 종교인들은 용감히 싸울 것이다. 김익두목사의 비행기 땅크기금 10만원 헌납에 호응하여 기독교인들 전쟁승리 위해 궤기」, 《로동신문》, 1950년 8월 5일; 「‘대학호’ 군기헌납을 호소 김일성대학교직원들 궤기」, 《로동신문》, 1950년 8월 6일; 「비행기 땅크 함전기금으로 1천 2백만원을 헌납 평남도 인민들의 애국지성」, 《로동신문》 1950년 8월 9일; 「전선에 바치는 인민들의 지성: ‘소년호’비행기 땅크 헌납운동, 녀성들도 군기헌납운동에 열성적으로 참가」, 《로동신문》, 1950년 8월 10일; 「7월말 현재 1억 7천만원을 돌파 비행기 땅크 함전기금」, 《로동신문》, 1950년 8월 12일; 「비행기 ‘함남소년호’는 전선으로 함남도 소년들 비행기 2대를 헌납」, 《로동신문》, 1950년 8월 13일; 「비행기헌납 기금으로 19만원을 회사 동평양교회 장로 최억태씨」, 《로동신문》, 1950년 8월 25일.

42) 반민족문제연구소(엮음), 『친일파 99인』2(돌베개, 1993), 162쪽.

43) 「상금 80만원을 비행기 기금으로 헌납」, 《대중일보》, 1949년 12월 1일. 대한부인회 전남지부에서도 주부들이 쌀을 절약하여 그 기금으로 ‘대한부인회 전남호’를 헌납할 것을 결의하였다. 「절미로 비행기 헌납」, 《동방신문》, 1949년 10월 21일.

의 사상”을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다.⁴⁴⁾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북한의 청년들은 전장과 후방에서 전쟁승리를 위해 동원되었다. 전쟁에서 보여 준 청년들의 활약은 ‘영웅’ 탄생의 소재가 되는데, 이것은 지배 권력이 대중으로부터 영웅을 만들어 대중 동원이라는 권력의 욕망을 투영시키기 위함이었다.⁴⁵⁾

III. ‘청년영웅’의 탄생 배경과 활동

1. ‘청년영웅’의 탄생 배경

전쟁은 영웅 탄생의 최적 조건을 만든다. 보통 인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초인적인 힘과 사랑을 전쟁이라는 참혹한 조건에서 발휘한다는 것은 영웅 탄생을 의미한다. 또한 희생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의 ‘영웅 만들기’는 전쟁에서 새로운 ‘희생’을 보장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영웅들은 권력의 정책 의지를 전달하는 ‘정치적 전도사’의 역할을 한다.⁴⁶⁾ 결국 권력은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사회에 관철시킨다. 시대적 필요에 의해 기억은 조작되기도 하는데, 이때 영웅은 만들어지기도 한다.⁴⁷⁾

사회주의 국가의 청년 영웅의 탄생과 확산은 러시아 혁명 이후 전개된 내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918년부터 1920년까지 러시아 전역을 휩쓸었던 내전 기간 구소련의 청년조직인 콤소몰 대원의 영웅적 투쟁은 청년들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 싸우도록 독려하는 계기가 되었다. 니콜라이 오스트로프스키(Nikolai

44) 금성청년출판사, 앞의 책(1982), 105쪽.

45) 권형진·이종훈 엮음, 앞의 책, 229쪽.

46) 차문석, 앞의 논문, 181쪽.

47) 대표적 예로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 문제를 들 수 있다. 드골 집권기 프랑스 사회를 지배한 레지스탕스, 즉 대독항쟁의 ‘신화’는 집단기억이란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전후 드골 정부는 부역자 숙청 작업이 끝나자 부역 대신 레지스탕스의 기억을 ‘암울한 시기’에 대한 공식적인 기억으로 내세움으로써 국가 재건에 필요한 국민적 자긍심과 애국심을 끌어내고자 한 것이다. 안병직, 「과거청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안병직(외), 『세계의 과거사 청산』(푸른역사, 2005), 29쪽.

Ostrovsky)는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에서 콤소몰 대원들의 청년 영웅들의 활동과 용기를 묘사하여 그들의 활동이 ‘전설’이 되도록 하였다. 이 시기 15~16세의 청년이 지휘관으로 전쟁에 참여하였으며, 17세의 래핀(Albert Lapin)은 30명의 화기 소대의 지휘관으로, 그의 동료 고리코브(Arcady Golikov)는 16세에 분대장이 되어 전투를 지휘하였으며 전쟁이 끝난 후에는 붉은군대의 사령관이 되었다.⁴⁸⁾ 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소련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 특히 ‘한밤의 마녀들(Night Witches)’로 알려진 여성 파일럿 중대가 두각을 나타내었다. 그들은 공중전에서 독일군의 진지를 괴롭히고, 루프트바페(Luftwaffe) 전투기를 격추시켰다. 이와 같이 많은 소련 여성들은 전선이나 빨치산 전투에서 용맹함을 발휘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다.⁴⁹⁾

소련의 사례와 같이 북한에서도 전쟁 기간 영웅이 등장하였다. 북한에서 처음으로 1950년 6월 ‘공화국 영웅’ 칭호가 제정되었다.⁵⁰⁾ 공화국 영웅 칭호를 제정하면서 김일성은 “영웅이 많을수록 그만큼 적을 많이 잡는 것이며 이것은 전쟁 승리를 앞당기는 것”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군인과 주민이 영웅이 되도록 싸울 것을 강조하였다.⁵¹⁾ 6·25전쟁 기간 북한에서는 533명의 ‘공화국 영웅’이 탄생하였으

48) Ann Todd Baum, *Komsomol Participation in the Soviet First Five-Year Plan*(New York: St. Martin's Press, 1987), pp. 20~21.

49) 존 M. 톰슨(지음)/김남섭(옮김), 『20세기 러시아 현대사』(사회평론, 2004), 452~453쪽.

5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1950년 6월 30일 ‘최고의 영예인 영웅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가 발표되었다. 정령 내용은 1. 조선인민공화국의 최고영예인 조선인민공화국 영웅의 칭호를 제정한다. 2. 조선인민공화국 영웅의 칭호를 받은 자에게는 이와 동시에 조선인민공화국의 최고훈장인 국기훈장 제1급 금별메달 및 조선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의 표창장을 수여한다. 3. “조선인민공화국 영웅칭호에 관한 규정”을 승인한다. 4. 금별메달 도해를 승인한다. 「최고의 영예인 영웅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 정경모·최달곤(책임편집), 『북한법령집』제1권(대륙연구소, 1990), 402쪽.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 정령을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국호마저 제대로 표기하지 못한 실수를 범했다.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잘못 발표하여 1954년 이를 정정하는 정령인 “1950년 6월 30일 ‘최고의 영예인 조선인민공화국 영웅 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에 보충을 가함에 관하여’를 다시 발표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54-1955』(조선중앙통신사, 1954), 60쪽.

51)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4(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311쪽. ‘영웅’칭호에 관한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조선인민공화국 영웅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의 영예이며 국가앞에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영웅적 위훈을 세운 자에 대하여 이를 수여한다. 제2조 조선인민공화국 영웅칭호는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이를 수

며, 16명의 노력영웅⁵²⁾도 탄생하였다.⁵³⁾ 1951년 12월 30일 현재 조선인민공화국 영웅칭호 수훈자는 309명이며, 이들 중 3명은 2중 영웅칭호를 받았다. 전체 309명 중 연령이 파악된 수는 266명이며, 이들 중 31세 이상은 30명이며 나머지 절대 다수가 20대이며 10대도 10명이 있다.⁵⁴⁾ 남녀 구성에 있어서 여자는 6명밖에 되지 않는다.

6·25전쟁 중에 청년들에 대한 대중적 영웅주의 정신의 교양 강화가 강조되었다. 참된 영웅적 정신은 인민에 대한 의무, 책임감이며 조국에 대한 충성심으로서 이기주의, 탐욕주의, 출세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⁵⁵⁾

우리는 적들의 일시적 강점 시기에 빨찌산을 조직하여 굴하지 않고 싸운 인민들과 청년들의 영웅적 투쟁에 대한 자료 수집 사업과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 정형에 대한 조사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워 뛰어난 공훈을 세운 청소년들을 동맹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표창하며 모든 청소년들이 그들의 영웅성과 애국심의 모범을 따르도록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⁵⁶⁾

여한다. 제3조 조선인민공화국 영웅은 칭호와 동시에 국가훈장 제1급 금별메달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표창장을 수여받는다. 제4조 조선인민공화국 영웅의 칭호를 받는 자가 거듭하여 조선인민공화국 영웅의 칭호를 받을만한 영웅적 위훈을 세운 경우에는 두 번째 금별메달을 수여하며 이와 아울러 그의 영웅적 위훈을 찬양기념하기 위하여 그의 영웅의 고향에 공훈사적을 세긴 동상을 건립한다. 이 경우에도 역시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표창장을 수여한다. 제5조 조선인민공화국 영웅칭호의 수여와 동시에 받는 국가훈장 제1급에 따르는 연금의 규정액의 2배로 한다. 제6조 조선인민공화국 영웅칭호는 영웅적 위훈을 세운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이를 수여한다. 제7조 조선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받은 자는 국가훈장 제1급 제2급 제3급에 관한 규정에 의한 모든 특전과 권리를 향유한다. 제8조 조선인민공화국 영웅칭호는 조선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만이 이를 박탈할 수 있다. 제9조 금별메달은 왼쪽기슴 상부에 패용(佩用)한다. 「조선인민공화국 영웅칭호에 관한 규정」, 《조선인민보》, 1950년 7월 6일.

- 52) 노력영웅 칭호는 1951년 7월 17일 제정되었다. 노력영웅 칭호는 경제, 문화, 건설 부문에 있어서 최고의 영예이다. 노력영웅 칭호를 받은 자에게는 국기훈장 제1급 금메달 ‘망치와 낫’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표창장이 수여된다. 「최고의 영예인 노력영웅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 정경모·최달곤(책임편집), 앞의 책(1990), 403쪽.
- 53) 금성청년출판사, 앞의 책(1982), 229쪽.
- 54)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국내편 1951~1952』(조선중앙통신사, 1952), 442~445쪽.
- 55) 김하영, 「청년들에 대한 애국주의 사상교양의 강화를 위하여」, 『청년생활』, 4권 5호(민주청년동맹, 1951), 31쪽.

이와 같이 전쟁이라는 절박한 상황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위기 극복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데 ‘영웅’들의 활동은 좋은 표본이 되었다. 즉 “긍정적 모범을 전형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적극 본받게 하는 방법으로 온 나라의 전체 인민을 새로운 혁신과 위훈으로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⁵⁷⁾

2. ‘청년영웅’의 활동상

북한의 『청년영웅전』에 수록된 영웅들의 활약을 통해 북한 청년영웅들이 갖는 보편성을 찾아보았다. 6·25전쟁 시기 탄생한 총 14명의 북한 청년영웅들의 출생부터 영웅으로 되기까지 과정을 서술한 <표 1>을 토대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1> 6·25 전쟁의 북한 ‘청년영웅’ 활동상

이름	출신배경	활동 내용
강호영	1927년생, 화전민출신으로 일제시대 머슴으로 생활.	1950년 12월 21일 소양강 부근 현리에서 전투를 승리, 1951년 1월 8일 충주와 원주 사이 대송리 부근에서 국군 8사단 10연대 2대대를 섬멸, 1951년 1월 17일 제천·원주 도로에 있는 감악봉 고지를 점령, 국군의 19차례 공격을 물리치고 고지를 사수함. 강호영은 전투에서 포탄 파편으로 두 다리와 왼팔 상처를 입고도 후송을 거부한 채 공격하는 국군에 맞서 자폭하여 고지를 사수함.
리수복	1934년 4월 12일생, 자강도 소작농 출신으로, 1948년 순천고 급중학교 재학 중 자원입대	1951년 10월 30일 15시까지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1211고지 방어를 위해 옆 무명고지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고 돌격조 조직을 제안하고 조장이 됨. 고지 점령 과정에서 한쪽 다리와 오른팔에 부상을 입었으나, 기어서 20m 전진하여 기관총에 자폭하여 명령 내에 고지를 탈환함.
신기철 박원진	박원진은 평북 구성군 출생으로 17살이면서 19살이라고 속여 입대하여 ‘꼬마병사’로 불림.	동부전선의 전술 거점인 854.1고지 점령을 위한 공격에 앞서 개최된 민청총회에서 박원진은 “당의 후비대인 민청원은 영예로운 목적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울” 것을 결의하였다. 고지점령에 나선 신기철은 국군의 공격으로 전진이 힘들어지고 오른쪽 다리까지 부상을 입지만 “부대 돌격로는 당원인 내가 개척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기어서 기관총 화점(火點)에 자폭하였음. 이를 지켜보던 민청원인 박원진도 민청 총회에서 결의한 것처럼 “민청원들이여! 노동당원들의 뒤를 따라 앞으로!”라는 말을 남기고 기관

56) 김일성, 「현 정세와 민청단체들의 당면과업에 대하여」(남북조선 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연합회의에서 한 연설, 1951년 1월 18일), 『김일성 저작집』6권, 263쪽.

57) 편집부, 「젊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은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적 대중운동」, 『근로자』, 453호(근로자사, 1980), 15쪽.

		총 화접에 자폭함.
김창걸	중국 길림성 통화현에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남. 중국인민해방군으로 입대했다가 1948년 조선인민군 입대.	1950년 강원도 화천 부근 602.6 고지 탈환 작전에 참가함. 민청원이었던 김창걸은 공격에 앞서 민청총회에서 돌격의 선두에 설 것을 결의하였으며 자신이 끝까지 지켜낸다면 노동당원으로 불러줄 것을 부탁한다. 공격에 나선 김창걸 소대가 기관총 공격으로 전진하지 못하자 자폭 공격을 감행하였다. 자폭 공격 전 분대장에게 자신이 돌아오지 못하면 죽은 후에라도 조선노동당원으로 불러 줄 것을 세포위원장에게 건의해 달라고 부탁하고 자폭 공격함
한계렬	1929년 9월 23일 함남 요덕군 출생.	1950년 7월 순천 북쪽 320고지 점령 전투에서 4명의 군인과 함께 마지막으로 육박전을 전개하면서까지 싸워 한 개 중대를 물리치고 고지를 점령함. 이후 소대장으로 진급하였으며 모범 전투원으로 선발됨. 51년 5월 평양에 김일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던 상황에서 4월 22일 강원도 인제 부근에서 전투를 수행함. 4개의 고지를 점령하려는 명령을 받고 전투에 참가. 부상을 입은 채로 마지막 고지를 점령하였으며 ‘조선노동당 만세! 김일성장군 만세!’를 외치고 사망함.
황순복	1933년생, 해방 후부터 전쟁 초기까지 세멘트공장에서 일하다가 폭격으로 공장이 파괴되자 입대.	군대에 입대한 후 중대장 연락병 임무를 맡음. 1951년 4월 20일 902.4고지 전투에서 부상 입은 중대장을 업고 부대 집결지로 가다가 3명의 국군을 포로로 잡고 무사히 도착함. 1951년 5월 17일 739고지 전투에서 그의 중대가 국군 76명을 생포하고 123명을 사살함. 이 전투 공로로 전사영예훈장 제1급을 수여받음. 동부전선 양구 지역 ‘칼능산’ 부근에서 전투에 참여. ‘칼능산’을 두고 10여 차례의 전투가 벌어짐. 황순복은 7번째 전투에서 오른쪽 무릎 아래와 손목에 부상을 입음. ‘칼능산’ 옆에 위치한 국군의 기관총 진지를 파괴하기 위한 작전에 ‘파괴조’로 지원함. 황순복은 중간 진지 파괴를 맡은 자가 부상을 당하자 그를 대신하여 중간 진지를 파괴한 다음, 자신이 맡은 오른쪽 진지 파괴를 위해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육탄 돌격하여 파괴 임무를 완수함.
김재경	1931년 양강도 보천군에서 극빈한 화천민의 아들로 태어남.	1950년 전쟁 발발 당시 소대장으로 근무. 1950년 7월 중대장으로 승진함. 1950년 8월 15일 대원 17명을 인솔하여 후방 교란 작전에 투입됨. 첫 작전에서 실패하고 왼팔에 총알이 관통하는 부상까지 당함. 실패 후 회의에서 “습격조에 5명의 당원이 있으며 당원에게는 점령하지 못 할 요새란 없다”고 강조하면서 대원들에게 당원을 따라 임무를 완수하자고 독려함. 다른 마을에 잠입하여 국군을 포로로 잡은 뒤 지휘부가 대구 동명원으로 이동한다는 첩보와 암호를 입수한 뒤 작전에 돌입. 작전을 위한 이동 과정에서 대원들에게 일제 식민통치기의 어려움들을 회상하도록 하여 전투 의지를 독려했으며 특히 자신이 1937년 접한 김일성에 대해 회상하면서 “김일성 장군님이 영도하신 항일 빨치산의 고매한 혁명정신과 백절불굴의 투지를 이어 받은 당의 붉은 전사는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울 것”을 호소. 습격조는 집결하던 미군 380여 명을 살상하고 자동차를 파괴. 국군 지휘부에 침투한 습격조는 연대장을 생포하였으며, 이들에게 포진지 위

		<p>치 정보를 파악하여 습격하여 파괴함. 이 과정에서 김재경은 부상 입은 사병을 업고 무사히 탈출하여 부대에 도착함.</p>
박석봉	<p>평남 강남군에서 출생, 3학년까지 최우등생이었으나 월사금을 내지 못해 수업을 반 정도밖에 듣지 못해 13살에 겨우 졸업. 졸업 후 농사를 지음.</p>	<p>1948년경 군대 입대, 경기관총 사수가 됨. 전쟁 개시 직후 천안에서 첫 전투를 치름. 미군 24사단이 방어하고 있던 864고지 탈환 전투에 참가하게 됨. 2차례 공격 했으나 실패하자 당원들을 중심으로 습격조를 조직하는데 박석봉도 참가함. 기관총 사격으로 전진하지 못하자 박석봉이 죽음을 각오하고 기어서 진지를 폭파함.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후송 조치를 당했으나 후송 도중 다시 부대로 돌아옴. 이후 소대장으로 진급함. 강원도 양구 인근 899.4 고지에서 2번째 전투를 치름. 박석봉은 소대원 10여명을 이끌고 기관총 진지 파괴에 나섰으며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자 자신이 유인 임무를 자처함. 결과 3개의 진지를 먼저 파괴. 그러나 3개의 진지를 남겨 놓고 박석봉은 총알을 맞아 팔이 떨어져 나가는 부상을 입음. 이어 그는 4번째 진지를 자폭하여 파괴하였으며, 소대원들은 그의 죽음을 보고 5·6번째 진지를 파괴하여 고지를 탈환하였음.</p>
조수환 ⁵⁸⁾	<p>1926년 전남 나주에서 조각농 아들로 태어남. 그의 8살 때 지주 지시로 작업하던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하였음. 그의 어머니도 지주에 의해 팔려가고 고아로 성장.</p>	<p>1951년 2월 6일 입당함. 당원이 된 후 첫 전투에서 조수환 분대가 미군 1개 중대를 격퇴함. 그리고 계속 밀려드는 국군을 맞서서도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1951년 4월 김일성이 부대를 방문하여 개최한 모범 전투원에 참가하여 ‘수령의 교사’를 가슴 깊이 새겼음. 1951년 7월 전투에서는 병사 1명의 신발이 찢어져 이동을 힘들어하자 자신의 신발을 벗어주고 집결지까지 나오자 없이 갈 수 있도록 헌신하였음. 1953년 1월 351 고지 사수 작전을 위해 투입됨. 351고지는 남북 모두에게 전술적으로 중요하여 1952년부터 서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던 고지였음. 1953년 6월 3일 고지탈환 임무가 부여되자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서 6월 4일 보천보 전투를 기념하여 “항일빨찌산의 혁명적애국정신을 계승한 우리가 뚫고 나가지 못할 요새는 없다”는 것이 강조됨. 조수환은 항일빨찌산처럼 조국을 사랑하며 수령에게 충실하겠다는 것을 다짐함. 치열한 공방에서 조수환은 수류탄을 맞아 이빨이 부러지긴 하였지만 지켜냈음. 전쟁 후 그는 군대 지휘관이 되었음.</p>
석취렬	<p>1928년 9월 1일 길림성 연길에서 태어남.</p>	<p>1950년 12월 4일 국군 퇴로 차단 작전에 투입. 퇴로 주변에 공격 진지를 설치한 후 투항을 권유하는 ‘함화’조 설치를 제안함. 이 전투에서 217명을 살상하고 120명을 포로로 잡음. 원주의 무명고지 점령 전투에서는 부상당한 부하를 ‘혁명적동지애’를 발휘하여 구해냄. 이 전투 후 당원이 됨. 그의 부대는 강원도 정선 부근에 있는 국군 9사단과 전투를 벌이게 됨. 그는 소대원을 이끌고 국군 부대에 잠입하여 정보를 캐는 임무를 받았음. 그는 국군 헌병대위로 위장하여 잠입하여 국군을 생포하고 정보 파악함. 파악한 정보에 따라 다른 마을에 잠입하여 또 30명을 생포하였음. 이동중 미국 전화선을 발견하고 이 전화를 도청하여 미군고문을 포로로 잡음. 미군고문을 미끼로 사용하여 또 70명의 국군을 생포함. 다음날도 신월부락에 잠입하여 국군 28연대 2대대원 170명을 유인하여 생포함. 1951년 3월 강원도 평창군 전투에서 사망.</p>

장제근	1925년 요녕성 죽안현 출생. 1941년 징용되어 일본 오사카군수품 공장에서 하루 18시간씩 강제노동을 함. 탈출 시도하다가 잡혀 오사카 상선으로 다시 끌려감. 해방 후 군에 입대함.	강화도 진입 도강전투에서 선두에서서 무사히 상륙시키는 활동을 펼침. 강화도 상륙 후 국군과 패잔병, 경찰 600여 명을 살상, 체포하였음. 영등포 전투 후 마산 진입을 위해 565고지 전투에 나섰음. 육박전까지 벌여 고지를 탈환하고 진지를 구축하였음. 국군의 고지 탈환 공격이 9차례나 전개되었으나 지켰음. 후방 공급의 주요 고지인 발산고지 시수 전투에 참가함. 발산고지로 이동 중 전차부대를 만나 3대를 파괴하였으며, 이어 40여명을 사살하는 전투를 벌여 승리하였음. 이동 도중 미군을 포로로 잡는 과정에 총알이 손을 관통하는 부상을 당했음. 이후 중대장인 된 장제근은 525고지 습격 전투에서 국군 복장으로 위장하여 승리를 거둠.
리태련	1925년 9월 1일 함남 단천군 화전민의 아들로 출생. 해방 후 아오지탄광에서 일함. 탄광에서 병을 얻은 후 제유공장으로 직장을 옮김.	행군 도중에도 틈이 나면 노동당원이 되기 위해 노동당규약 책을 읽음. 행군에서 모범을 보여 군공메달을 수여, 당에 입당. 1951년 6월 강릉 인근의 도로를 차단하여 국군의 후방 수송을 봉쇄하는 전투에 참가. 이 전투에서 60여명을 살상하고 10여대의 자동차를 파괴·노획. 강원도 원통부근 752고지를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음. 계속되는 미군과 국군의 고지 탈환 공격으로 소대장이 전사하는 등 많은 희생을 당하지만 고지를 지키고자 최선을 다함. 계속되는 전투로 인해 전투원들이 힘들어하자 그가 맹세문을 꺼내 “최고사령관동지께 드린 맹세를 다 실천하지 못했소...최고사령관동지께서 드린 맹세대로 조국의 한치 땅도 끝까지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맹세. 총탄 80발과 과 수류탄 3개밖에 남지 않아 부대원들에게는 군수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고 혼자 고지에 남아 전투를 벌임. 총탄과 수류탄을 다 사용하고 육박전을 벌이던 순간 총탄을 구하려 간 병사들이 도착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음.
전기련	1930년 9월 29일 함남 신창군 출생. 소학교 졸업 후 14살에 철공소 급사로 일함.	전쟁 시작부터 214호 전차 운전수로 참가하였다. 포천 진입을 위한 전투에서 국군의 포진지를 파괴하여 진격에 공을 세웠다. 의정부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매설된 지뢰를 밟아 변속기가 고장 나는 사고를 겪지만 지렛대를 이용하여 변속기를 고정한 채 진격하였다. 서울에 진입하여 시가전을 벌이던 국군과 전투를 벌여 공을 세웠다.
리동규	1929년 3월 27일 평양 출생. 1946년 철도경비대에 입대. 평양학원항공과에 입학한 뒤 항공학교가 창설되면서 전학. 1949년 말 졸업과 함께 전투비행사가 됨.	1950년 6월 28일 첫 전투비행에 나섬. 수원 상공에서 첫 공중전을 벌여 승리함. 1950년 7월 11일 평택, 천안일대 보병 지원에 나갔다가 미군비행대와 전투를 벌여 미군 폭격기를 격추하였으나 위기에 처한 편대장 비행기를 대신하여 격추당함. 비행기에서 탈출하여 전투지역에 떨어짐. 북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인민군으로 위장한 국군을 생포함. 1950년 7월 12일 처음으로 미군의 B-29 비행기와 공중전을 벌임. 2대의 전투기를 격추시킴. 23세 해인 1952년 사망.

※ 자료 :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출판사, 『청년영웅전』(1)(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출판사, 1965); 근로단체출판사, 『청년영웅전』(2)(근로단체출판사, 1966)에 수록된 내용들을 요약하였음.⁵⁹⁾

58) 조수환부터는 『청년영웅전』(2)에 나오는 인물이다.

59) 북한 금성청년출판사에서는 1978년부터 『조국을 지켜 싸운 영웅전사들』 3권을 발간하였다. 이

<표 1>에서는 북한 청년영웅의 활동을 정리하였다. ‘청년영웅’의 서술에서 나타나는 보편성은 출신 계급과 교육에 대한 강한 열망, 일제시대 경찰과 지주에게 핍박받으며 장시간의 강제노동 등에 고통 받았다는 것, 죽음을 각오한 전투자세, 어려운 상황에서 김일성의 ‘항일투쟁’에 대한 회상, 당원의 신비화 등을 들 수 있다. 영웅들 대부분 빈농, 소작농, 화전민, 머슴과 같은 최하층 계급 출신이다. 영웅들에 대한 서술에서 ‘학교’를 중요한 모티브로 삼는 것은 해방 후에 이들은 학교에서 마음껏 배울 수 있었으며 이러한 배움을 방해하는 ‘미제와 이승만 도당’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논리적 연관성, 즉 입대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⁶⁰⁾

‘청년영웅’들의 영웅적인 전투는 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고지를 두고 벌어졌다. 오늘날 북한의 대표적인 ‘영웅’인 이수복은 1211고지⁶¹⁾ 전투에 참가하였다. 1211고지는 미군이 ‘단장의 능선(Heartbreak Ridge)’이라고 부르는 고지로, 이 고지를 잃게 되면 중요한 군사항인 원산항을 잃게 될 만큼 전략 거점이었다.⁶²⁾ 중요한 고지를 지키기 위해 벌인 전투에서 ‘청년영웅’들은 ‘돌격조’가 되어 ‘자폭(自爆)’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끈다. 김일성은 ‘자폭’ 영웅들에 대해 “공화국 영웅들은 전투의 어려운 순간에 불을 뿜는 적화구를 자기의 몸으로 막았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 속에 뛰어 들어가 원수들을 소멸함”으로 영웅주의와 애국주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고 강조하였다.⁶³⁾

책에서는 총 45명의 영웅담이 나온다. 전체 45명의 ‘영웅’ 중 <표 1>과 중복된 사람은 강호영, 이수복, 한계렬, 황순복, 김재경, 석취렬, 리동규로 총 7명이다. 금성청년출판사, 『조국을 지켜 싸운 전사들』1·2·3(금성청년출판사, 1978·1979·1980).

60) 차문석은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인류학의 개념을 차용하여 신화소(mytheme)의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중국의 영웅 레이핑과 북한의 영웅 길화실이 신화화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권형진·이종훈(역음), 앞의 책, 107~113쪽 참고.

61) 1211고지는 전쟁 후 ‘혁명사적지’가 되었다. 1211고지에 강원도민과 군인들이 ‘영광의 사적비’를 건립하고 김일성의 ‘혁명위업’과 전쟁 승리를 기념하고 있다고 한다. 금성청년출판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혁명사적지』(금성청년출판사, 1981), 130쪽. 1211고지는 가장 중요하고 지켜야 하는 임무라는 은유적 표현의 상징으로 정착되었다. 철강산업이 공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의미로 사회주의건설의 1211고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와 같은 사례이다. 리성찬, 「천리마의 고향 강선의 청년건설자들은 수평을 목숨으로 보위하며 그이의 교서관찰에서 근위대, 결사대가 되겠다」, 『전국청년총동원대회 문헌집』(조선청년사, 1968), 111쪽.

62) Wilfred G. Burchett(저)/김남원(옮김), 『북한현대사』(신문학사, 1988), 113쪽.

‘청년영웅’ 서술에 있어 어렵고 힘든 상황은 김일성의 ‘항일투쟁’과 연결시키는 특징이 나타난다. ‘청년영웅’들은 보천보 전투에 대한 회상, 조국광복회 활동에 대한 회상, 김일성 항일 활동에 대한 소문에 대한 회상 등을 통해 김일성이 안겨 준 ‘행복한 삶’에 감사하며 충성과 죽음으로 보답할 것을 결의한다. 북한에서 항일유격대가 북한사회에서 공산주의자의 전형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부터였다. 1959년부터 출판되기 시작한 ‘항일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가 전체 사회에 광범위하게 읽혀지고 혁명전통교육의 일환으로 학습되면서 항일유격대원은 북한사회에서 공산주의자의 전형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북한지도부는 개인승배가 전면화되고 유일사상체계 확립운동이 전개되는 1960년대 중후반부터 회상기 속의 유격대원을 매개로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실성 학습을 전개하였다. 이때 대중은 학습을 통해서 수령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충실했던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가들’인 항일유격대원의 모범을 본받아 수령에 대해 무조건 충실한 전사가 될 것을 요구받았다.⁶⁴⁾

『청년영웅전』도 발간 시점에 따라 김일성에 대한 ‘절대화’에 대한 서술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 1966년에 발간된 2권이 1965년에 발간된 1권보다 더욱 강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심지어 “만수무강을 삼가축원”하는 문구까지 등장한다. 청년영웅들이 용감성을 발휘하여 ‘불멸의 위훈’을 세운 기저에는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혁명정신, 애국심이 놓여 있다고 선전한다.⁶⁵⁾ 이 시기 당원은 신성하며 지도자의 명령을 무조건 관철시킬 수 있는 존재로 묘사된다. “습격조에는 5명의 당원이 있으며 당원에게는 점령하지 못 할 요새가 없다”고 자폭 공격에 나서면서 자신이 돌아오지 못하면 노동당원으로 불러줄 것을 세포위원장에게 청원하는 등 노동당원 대한 신비화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청년들이 “조국보위의 주력군, 국방건설의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6·25전쟁 시기 ‘청년영웅’의 정신은 놓칠 수 없는 사상교양의 도구이다. 6·25전쟁에서 1211고지에서 전사한 ‘청년영웅’ 이수복은 불멸의 애국심

63) 김일성, 「공화국 영웅들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세운 불멸의 위훈을 계속 빛 내어 나가야 한다」(전국전투영웅대회에서 한 연설, 1953년 8월 19일), 『김일성 저작집』8권(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66쪽.

64)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역사비평사, 2001), 228-229쪽.

65) 「전체 청년들은 조국의 통일과 혁명을 위하여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며 수령의 명령 지시 관철에서 근위대, 결사대가 되자!」, 『전국청년총동원대회 문헌집』(조선청년사, 1968), 62쪽.

의 상징이 되어, 모든 청년들이 그의 ‘육탄정신,’ ‘사생결단’ 정신을 따라 배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위기의 북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6·25전쟁의 ‘청년영웅’들 처럼 사회주의 수호와 강성대국 건설에서 ‘다음번 화점(火點)’을 막는 ‘청년영웅’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IV. 북한 위기와 ‘청년영웅’의 부활

1991년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해체되었으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 또한 급격한 체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전통 우방국들의 몰락은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갖게 하였다.⁶⁶⁾ 북한 당국은 대·내외적 위기를 맞아 본질적인 처방보다는 ‘사상’적 통제로 위기를 봉합하고자 하였다.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여 북한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사회주의적 조류들을 막아내고 주체사상 교육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절실하게 된 것이다.⁶⁷⁾ 북한은 먼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당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하여 당원들의 생활을 통제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였다.⁶⁸⁾

북한의 위기 심화는 사회 모든 문제를 군대가 중심이 되어 해결해 나가는 선군

66) 중국에서는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미국의 대중국 인권정책과 외교 고립화 정책에 대응하여 ‘반화평연변론(反和平演變論)’이 유행하였다. ‘화평연변’은 평화적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전적 의미와 함께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가 사회주의 국가를 평화적으로 전복하려는 활동으로 해석된다. 1991년 7월 1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당 창건 70주년 기념 사설에서 “세계의 사회주의 사업이 혹독한 좌절에 직면해 있고 적대 세력은 사회주의 국가를 평화적으로 전복” 하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경계를 환기하였다. 류동화, 『그들이 중국을 움직인다』2(한울, 2002), 104~105쪽.

67) 중국에서도 청년들에게 마오쩌둥, 덩샤오핑, 천윈과 같은 영웅들의 정신을 학습하여 조국애와 인민에 대한 봉사 정신을 체득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중국 공청단과 청년보 등이 주체가 되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추모대회를 개최하는 등 청소년들이 영웅의 업적을 기리고 사회주의 영욕관(榮辱觀)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http://www.china5000.org.cn/rzg/qs_n_37.htm(검색일: 2007년 11월 10일).

68)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1991년 ‘전국당세포비서 강습회’를 개최하여 당원들의 생활에서부터 황색 바람 차단에 주력하였다. 당원들에 대한 통제에 이어 당과 대중을 이어주는 인전대 역할을 하는 근로단체들에 대한 지도 사업을 강화하였다. 사회과학원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의 사회주의건설령도사』(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192쪽.

정치를 낳았다. 선군정치의 실현에 있어 군대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필연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북한 청년 계층의 사회적 임무를 “조국보위 주력군, 국방건설의 담당자가 되며, 당의 선군 혁명 노선 관철의 선봉대, 돌격대”⁶⁹⁾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인민군 ‘청년’ 군인과 사회의 ‘청년’들은 같은 ‘청년’이지만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당 사업을 더욱 잘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⁷⁰⁾ 이런 차원에서 북한에서는 청년들에게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혁명적 군인정신’은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 희생정신으로 선군정치 시대의 사상사업의 전형이 되고 있는 것이다.⁷¹⁾

북한은 ‘핵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대립이 고조되자 2003년 9월 5일 북한은 ‘선군시대 영웅대회’를 개최하여 체제 단속에 나섰다.⁷²⁾ 이 대회를 통해 북한은 “사생결단의 각오를 지니고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 나가는 군대와 인민의 위력을 과시하는 계기”로 삼아 미국의 압박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다.⁷³⁾ 조선노동당은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축하문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군인들, 근로자들은 반미대결전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준엄한 정세에 대처하여 높은 반제반미계급의식을 지니고 우리의 사회주의 계급 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적들이 감히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천만군민이 산악같이 일떠서 침략자들을 철저히 소탕하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성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⁷⁴⁾

‘선군시대 영웅대회’는 1988년 9월에 있었던 ‘전국영웅대회’보다 군인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1988년 ‘전국영웅대회’는 ‘200일 전투’를 총화하고 제3차 7개년계획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북한은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

69) 《로동신문》, 2004년 4월 8일.

70) 김정일, 「올해에 당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14권(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256쪽.

71) 김인옥, 『김정일장군 선군정치리론』(평양출판사, 2003), 206쪽.

72) 중국에서도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인민들의 사상무장운동으로 ‘뇌봉학습운동’이 부활하였다. ‘뇌봉운동’은 당과 정부의 주도로 줄기차게 전개되었는데 언론들은 연일 뇌봉운동의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동률, 「개방속의 새로운 영웅들의 탄생」, 《북한》, 1994년 5월호, 111쪽.

73) 「선군시대 영웅들은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투사들이다」, 《로동신문》, 2003년, 9월 5일.

74) 「축하문 선군시대영웅대회 참가자들에게」, 《로동신문》, 2003년 9월 6일.

학생축전을 앞두고 도시정비를 비롯한 경기장 건설이 필요하였다. 이에 김일성은 1988년 2월 20일부터 국가 수립일인 9월 9일까지 ‘200일 전투’라는 노력경쟁 운동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예상만큼 성과가 나지 않게 되자 ‘전국영웅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대회 참가자들이 ‘제2차 200일 전투’를 받기하는 형식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였다.

1988년 대회가 경제적 난제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2003년 대회는 외교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개최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선군시대 영웅대회’ 보고에서 조명록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청년들은 김정일의 선군혁명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사회주의 수호와 강성대국 건설의 돌격대가 될 것을 강조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청년들의 경제강국 건설의 전초병이 되어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 데서 위훈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될 것을 호소하였다.⁷⁵⁾

최근 청년들의 ‘영웅’ 정신이 경제 건설 부문에 발휘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년영웅도로’ 건설 사업이다. 1998년 11월 김정일의 지시⁷⁶⁾로 공사 업무를 주관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1년 11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조선노동당 창당 55주년을 기념하여 2000년 10월 10일 완공식을 개최하였다. 이 건설 사업에는 연 5만명의 전국 청년들이 참가하였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에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는 어려운 시기에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을 발휘하여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뚫고 노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 창조물인 청년영웅도로를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하는 데서 특출한 노력적 위훈을 세운 일꾼들과 청년돌격대원들”에게 노력영웅칭호와 훈장을 수여하였다.⁷⁷⁾

‘1211 고지 사수의 영웅’ 이수복은 ‘선군시대’의 ‘영웅’으로 다시 한번 상징화되고 있다. 이수복을 주제로 한 ‘혁명군가’인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와 “조국을 위한 길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육탄정신, 사생결단”의 정신이 강조되고 있다. ‘선군시대’에 청년들에게 “혁명의 3·4세대이며, 영웅의 그 나이 열여덟이었다. 영웅의 시와 노래를 더 많이 읊고 부르며 조국보위 초소에서, 강성대국 건

75)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2004』(조선중앙통신사, 2004), 141쪽.

76) 당시 도(道) 청년동맹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탈북한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최룡해 청년동맹 제 1 비서가 비리 혐의로 숙청된 후 청년동맹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여 청년동맹에게 고속도로 건설 과업을 부여했다고 한다. 새터민 A와의 인터뷰(2006년 1월 6일).

77) 《연합뉴스》, 2001년 3월 26일.

설장에서 다음번 화점을 막는 영웅”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수복 정신을 계승하여 위기의 북한 체제를 수호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⁷⁸⁾ 이와 같이 전쟁시기 ‘청년영웅’들은 북한의 정치 경제적 충격과 변동이 가장 격렬하게 발생할 때마다 ‘사회주의 건설영웅,’ ‘선군시대 청년영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⁷⁹⁾

V. 결론

6·25전쟁에서 북한은 군인 60만 명의 인명 손실을 입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청년들이었다.⁸⁰⁾ 수많은 북한 청년들은 전쟁에 동원되어 전투에 참여하거나, 후방에서 ‘청년전선 작업반,’ ‘전선청년돌격대’ 등으로 전시 경제 증산 운동에 참가하였다. 심지어 어린 소년·소녀들은 ‘전선원호’운동으로 위문활동과 ‘소년호’ 헌납과 같은 군기헌납운동에 동원되었다.

전쟁 기간 북한에서는 총 549명의 전쟁영웅이 탄생하였다. ‘청년영웅’들은 전투가 위기에 처할 때 죽음을 각오하고 돌격조가 되어 ‘자폭’하여 승리로 이끌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인적 힘으로 전투를 승리로 이끈 청년은 ‘영웅’으로 재탄생된다. 희생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의 ‘영웅 만들기’는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희생’을 보장하는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북한 ‘청년영웅’들의 신화소(mytheme)는 빈농, 소작농, 화전민, 머슴과 같은 최하층 계급 출신으로 해방 후 만끽하던 자유와 해방감을 ‘미제와 이승만 도당’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신념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전쟁 ‘영웅’들의 정신은 전후 복구 과정에서 청년들에 대한 동원을 규율하는 기제로 진화하였다. 북한 청년들의 경제사업 동원에서 군사적 편제와 용어, 규율을

78) 「영웅의 심장 오늘도 뿜는다」, 《로동신문》, 2005년 12월 8일.

79) 최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영웅사관’은 퇴색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민주주의제도와 가치관의 확산이 가장 큰 이유이며, 히틀러나 스탈린의 전체주의를 경험한 이후 1인 숭배는 하나의 ‘악몽’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디어에 의존하는 ‘이미지 정치’가 존속되고 있어 스타에 대한 열광과도 같은 새로운 형태의 ‘영웅 숭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박지향(외), 『영웅만들기』(휴머니스트, 2005), 16쪽.

80) 「6·25전쟁 통계: 기타 현황」, <http://www.imhc.mil.kr/>(검색일 2006년 6월 20일). 국군도 62만 명, 유엔군 15만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적용하여 ‘동원의 전투화’를 시도한 것이다. ‘동원의 전투화’는 청년들의 경제적 노력 동원이 작업 전투가 되며, 소대·중대·대대 편제는 개인별·집단별 경쟁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노동 규율이 효과적으로 침투하는 이 점을 가지게 되었다.⁸¹⁾ 이러한 청년 동원의 전투화는 1975년 상설 조직인 ‘속도전 청년돌격대’를 통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경제 동원의 일상화·전투화 될 수 있었던 하나의 원인으로 전쟁에 대한 기억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쟁에서 희생된 ‘청년영웅’에 대한 ‘기억’을 통한 정치화, ‘기억의 정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청년영웅’은 사회주의 붕괴 이후 심화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강조되고 있다.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에서 모든 청년들을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선군시대의 청년영웅, 총폭탄 영웅”으로 준비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1211고지 사수의 영웅’ 이수복을 주제로 한 군가인 ‘선군시대 진군가’가 유행하는 등 영웅의 정신을 계승하여 북한체제를 수호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 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라는 구호를 통해 북한 주민 누구나 다 ‘청년영웅’이 국가를 위해 희생된 것처럼 강성대국 건설에 ‘영웅성’을 발휘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 전쟁 영웅의 정신이 강조되는 것은 그만큼 체제위협 요소가 그만큼 강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의 ‘영웅’을 통한 체제 유지전술의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우선 북한의 경제위기, 즉 분배 능력의 상실은 국가와 주민간의 균열을 가져왔다. 분배를 관장하는 국가에 대해 주민들은 충성과 성실한 노동으로 보답하던 관계가 붕괴된 것이다.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 해도 굶주려야 할 상황은 ‘영웅’으로의 인입 동기를 떨어뜨린 것이 명백하다. 또한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시장지향적 가치의식이 싹트고 있는 상황에서 이데올로기 중심의 도덕적 자극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시장지향적 가치의식은 기본적으로 국가의존적 태도의 약화, 개인주의, 물질주의를 내포한다. 절대 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영웅’들이 보여 준 국가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열정 대신에 돈과 개인을 위해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81) 채종완, 『청년사업 경험』(사회과학출판사, 1990), 72~73쪽.

참고문헌

- 《로동신문》; 《민주청년》; 《경향잡지》; 《대중일보》; 《조선중앙통신》(www.kcna.co.jp); 《동방신문》; 《조선인민보》.
- 국방군사연구소, 『점령정책·노무운용·동원』.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 사료집』29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8.
- 국토통일원, 『조선노동당대회 자료집』제1편.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권형진·이종훈(역음), 『대중독재의 영웅만들기』. 서울: 휴머니스트, 2005.
- 김상범, 「한국전쟁기 조선로동당 정치조직사업의 특징에 관한 연구: ‘총력전사회’의 형성」.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중수, 「북한의 위기대응 전략: ‘청년중시’ 정책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통권 43호, 평화문제 연구소, 2005, 251~277쪽.
- 김진계·김응교, 『조국』상. 서울: 현장문학사, 1990.
- 도미야마 도이치(저)/임성모(옮김), 『전장의 기억』. 서울: 이산, 2002.
- 류동화, 『그들이 중국을 움직인다』2. 서울: 한울, 2002.
- 박명립,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서울: 나남출판, 2004.
- 박성희, 『북한 청소년 단체활동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 박영자, 「6·25전쟁기 북한의 후방정책」. 『군사』 제57호, 군사편찬연구소, 2005, 235~270쪽.
- 박지향(외), 『영웅만들기』. 서울: 휴머니스트, 2005.
- 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친일파 99인』2. 서울: 돌베개, 1993.
-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 성립사(1945~1961)』. 서울: 선인, 2005.
- 안병직(외), 『세계의 과거사 청산』. 서울: 푸른역사, 2005.
- 이동률, 「개방속의 새로운 영웅들의 탄생」. 『북한』 1994년 5월호, 북한연구소, 108~122쪽.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1.
- 정경모·최달곤(책임편집), 『북한법령집』제1권. 서울: 대륙연구소, 1990.
- 존 M. 톰슨(지음)/김남섭(옮김), 『20세기 러시아 현대사』. 서울: 사회평론, 2004.
- 차문석, 「북한의 노동 영웅에 대한 연구: 영웅 탄생의 정치 경제적 메카니즘」. 『사회과학연구』 21집 1호,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2004, 170~204쪽.
- 최대석·김중수, 「북한 권력승계 시기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변화 연구」. 『현대북한연구』 9권 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6, 80~126쪽.

클라우제비츠(저)/이중학(역), 『전쟁론』. 서울: 일조각, 1981.

Wilfred G. Burchett(저)/김남원(옮김), 『북한현대사』. 서울: 신문학사, 1988.

『김일성 저작집』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김일성 저작집』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김정일 선집』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근로단체출판사, 『청년영웅전』2.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1966.

금성청년출판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소년들의 투쟁』.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82.

금성청년출판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혁명사적지』.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81.

금성청년출판사,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령도사』.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7.

금성청년출판사, 『조국을 지켜 싸운 영웅전사들』1·2·3.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78·1979·1980.

금성청년출판사,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사』2.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82.

김영동,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6.

김인옥, 『김정일장군 선군정치리론』. 평양: 평양출판사, 2003.

김정일, 『모두가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김창호, 『조선교육사』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0.

김하영, 「청년들에 대한 애국주의 사상교양의 강화를 위하여」. 『청년생활』 4권 5호, 청년생활사, 1951, 24~33쪽

력사연구소 민족학연구소, 『조국해방전쟁시기 발현된 후방인민들의 혁명적 생활기풍』.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6.

림기성, 「조국해방전쟁시기 청년운동과 그 역사적 의의」. 『력사과학』 107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11~17쪽.

민청출판사, 『조선청년』(2). 평양: 민청출판사, 1961.

박태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사회과학원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의 사회주의건설령도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엔·보즈네센스키(저)/김광순·조영식(역), 『조국전쟁시기에 있어서의 쏘련의 전시경제』. 평양: 재정성 영경회계연구회, 1948.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해방후 우리나라의 인민경제발전』. 평양: 과학원 출판사, 1960.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출판사, 『청년영웅전』1. 평양: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출판사, 1965.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54~1955』.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4.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65』.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2.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국내편 1951~1952』.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2.

채종완, 『청년사업 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청년생활사, 『레닌-스탈린적 공청』. 평양: 청년생활사, 195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회의록』. 평양: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1948.

최중극, 『위대한 조국해방전쟁과 전진경제(1950~195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편집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은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적 대중운동」. 『근로자』 453호, 근로자사, 1980, 14~19쪽

허종호,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1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Ann Todd Baum, *Komsomol Participation in the Soviet First Five-Year Pla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7.

국 문 요 약
<p>이 논문의 목적은 6·25전쟁 기간 북한 ‘청년영웅’의 역할과 성격을 분석하여, 오늘날의 위기 상황에서 ‘청년영웅’이 어떻게 기억되며, 그 정신이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데 있다.</p> <p>북한은 전쟁의 경험을 체제 유지의 역사적 자원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 북한은 전쟁발발일과 휴전협정 체결일을 기념하여 대중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즉 ‘전쟁승리’에 대한 기억을 통해 체제 정당성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쟁영웅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전환과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체 인민들이 따라 배워야 할 모범이 된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영웅의 창조와 그 영웅의 소비는 사회주의 ‘스</p>

팩터클 사회*를 구축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북한에서는 6·25전쟁 기간 550명 이상 영웅이 탄생하였다. 이러한 ·영웅적 인물*은 권력에 의해서 과잉 신비화되고 신화화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창조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영웅은 일반적으로 그 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선전 수단으로 이용된다.

● 투고일 : 2008. 1. 9.

● 심사완료일 : 2008. 2. 28.

● 주제어(keyword) : 청년(Youth), 청년동맹(Youth league), 전쟁(Korea war),
근로단체(transmission belt), 북한정치(North korea politic).